

박성현, 퍼팅과 자신감까지 굿!

'장타 여왕'에게 어떤 변화 있었나

3개월간 美전훈 퍼팅·소프트게임 보완 퍼팅 백스윙 크게 해 거리 정확도 향상 LPGA 3경기 기대이상 성적도 긍정적

박성현(23)이 국내 무대로 복귀했다. 시원스런 장타와 과감한 경기 운영은 박성현의 트레이드마크. 팬들도 그런 매력에 반했다. 박성현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현대차 중국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한 뒤 미국으로 3개월 동안 전지훈련을 떠났다. 그리고 미국여자프로 골프(LPGA) 투어 세 경기에 출전했다. 약 4개월 만에 돌아온 박성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정교한 퍼팅, 섬세해진 어프로치

장타자 박성현의 약점은 퍼팅이었다. 지난 시즌 드라이브 샷 평균거리 1위(254.28야드), 그린적중률 6위(76.98%)를 앞세운 박성현은 버디율(20.63%)과 라운드 당 평균 버디수(3.71개)에서 1위였다. 그러나 그의 전체 평균 퍼팅 순위는 74위에 그쳤다. 라운드 당 평균 31.15개를 기록했다.

박성현은 작년 12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주 테미큘라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3월 말까지 긴 훈련을 통해 부족했던 퍼팅과 소프트게임 보완을 계획했다.

15일 경기도 안산의 아일랜드 골프장에서 약 4개월 만에 국내 무대에 출전한 박성현에게서는 단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퍼팅은 28개였다. 버디 8개를 잡아냈고, 보기는 1개 밖에 하지 않았다. 8개의 버디 중 가장 긴 거리는 6m였고 가장 짧은 거리는 1.5m였다. 대부분의 퍼팅은 2~4m로 쉽지 않았다.

정교해진 퍼팅은 앞서 미국에서 치른 세 차례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JTB파운더스컵에선 평균 25.75, 기아클래식 28.75, ANA인스퍼레이션 29.5를 기록했다. 12번의 라운드에서 7차례 20대 퍼팅수를 기록했고, 30개 이상은 5차례 밖에 되지 않았다. 파운드스컵 4라운드에서는 퍼팅을 23개로 끝낸 적도 있었다.

두 가지 변화가 박성현의 퍼팅을 바꿔 놨다. 첫 번째 변화는 백스윙의 크기다.

박성현은 "예전에는 백스윙을 하다가 말고 퍼팅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거리 감각이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는 백스윙 때 헤드 크기만큼 크게 하고 있다. 그 결과 헤드에 정확하게 맞히는 확률이 높아졌고 거리감각도 훨씬 정확해졌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허리다. 예전에는 일부러 허리를 굽듯 세운 자세에서 퍼팅을 했는데 올해는 살짝 구부러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성현은 "허리를 살짝 구부린 자세로 바꾸면서 어깨 회전도 더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소프트게임은 섬세해졌다. 작은 변화가 있었다. 그림을 짧게 잡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전에는 그림을 칠 때 손을 위쪽 끝 부분까지 올려 잡았다. 그러나 전지훈련 동안 손을 샤프트와 연결된 그림의 가장 아랫부분까지 내려 잡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다. 장단점이 있지만, 불필요



장타에 비해 퍼팅과 소프트게임이 약점으로 지적받은 박성현은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전지훈련에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했다. 특히 어프로치에서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그림을 짧게 내려잡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다. 그림을 짧게 잡고 스윙하고 있는 박성현. 사진제공 | 마니아리포트

한 동작을 줄이고 좀더 볼을 정확하게 맞히겠다는 의도다. 변화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박성현은 "예전에는 어프로치 때 그림을 끝까지 잡고 스윙했다. 그러나 전지훈련 기간 동안 그림을 최대한 내려잡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 결과 훨씬 정확한 볼 터치가 이루어졌고 실수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늘어난 자신감

LPGA 세 경기를 뒀 박성현은 파운드스컵 공동 13위, 기아클래식 공동 4위 그리고 메이저대회인 ANA인스퍼레이션에서 공동 6위에 올랐다. 기대 이상의 성적은 박성현에게 자신감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시켰다. 특히 처음 출전한 메이저대회에는 박성현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다.

박성현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다. 무엇보다 ANA인스퍼레이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됐고, 그런 것들이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훈련과 LPGA 세 경기 출전으로 기술적인 변화와 자신감이 늘어난 반면 박성현 특유의 몰아치기와 공격적인 경기 운영은 그대로다. 즉,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그대로 유지했다.

복귀점이었던 삼천리 투게더오픈 1라운드에서는 '박성현표' 공격 골프가

인상적이었다. 박성현은 4개의 파5 홀에서 모두 버디를 잡아냈다. 박성현은 "경기운영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무조건 공격적인 성향의 경기를 펼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슷하다"면서 "멀리 쳐놓고 핀에 가까이 붙여서 성적을 올리는 작전을 펼쳤고 그로 인해 파5 홀에서 모두 버디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경험은 박성현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삼천리 투게더오픈 최종라운드에서 박성현은 신인 김지영과 시소게임을 펼치며 우승을 다했다. 한때 2차 차까지 벌어져 우승에 실패하는 듯 했지만, 후반 뒷심을 발휘하며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갔고 결국 우승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박성현은 "작년보다 많은 경험을 했고 다양한 선수들과 함께 경기하면서 또 다른 경험을 했다. 그런 경험이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이 된 것 같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힘써 말했다.

박성현은 이번 시즌 KLPGA 투어의 강력한 상금왕 후보다. 가장 먼저 2승 고지에 오르면서 대세론에도 힘이 실렸다. 더 강해진 박성현이 김효주(2014년 상금왕·12억897만원)와 전인지(2015년 상금왕·9억1376만원)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상금랭킹은 46위(100만2913달러)다.

지난해 프레지던트스텝에서 맹활약한 유러피언투어의 강자 브랜드 그레이스(남아공·사진)가 함께 9언더파 275타를 쳐 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 그레이스는 유럽에서 7승을 올렸다. 우승상금은 106만2000달러(12억원)이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김민휘, PGA RBC 헤리티지 공동 6위

김시우, 공동 14위...그레이스 첫승

'코리언 영건' 김민휘(24)와 김시우(21)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헤리티지(총상금 590만 달러)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하반기 전망을 밝게 했다.

김민휘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힐튼 헤드의 허버타운 골프장(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쳐 합계 4언더파 280타로 공동 6위에 올랐다.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의미 있는 성적이다. 김민휘는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14개 대회에 출전해 7차례 첫 탈락하는 등 고전했다. 내년 시드 확보를 위해선 비상이 걸렸다. 페덱스

랭킹 또는 상금랭킹 125위 이내에 들어야 시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모두 170위 밖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공동 6위에 오른 김민휘는 페덱스랭킹 150위, 상금랭킹은 137위(28만5050달러)로 끌어 올려 급한 불을 껐다.

김시우는 공동 14위(합계 2언더파 282타)를 기록하면서 시즌 상금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선수로는 최경주에 이어 두 번째다. 사실상 내년 시드를 확보해 둔 김시우의 2차 목표는 플레이오프 투어 챔피언십 진출이다. 4개 플레이오프 중 3차 대회까지 페덱스랭킹 30위를 유지하면 투어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고, 내년 마스터스 출전권도 받을 수 있다. 김시우의 페덱스랭킹은 36위,

국제농구연맹 심판 캠프... '판정 논란' 줄이는 계기로

최용석 기자의 팀인

FIBA 심판위원장 등 강사로 참여 KBL·WKBL 심판 이론실기교육 판정 가이드라인 정립·일관성 필요

국제농구연맹(FIBA) 심판 캠프가 경기도 고양체육관에 열리고 있다. 17일부터 20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캠프에는 칼 음브랜드(핀란드) FIBA 심판위원장, 스티브 셰이벨(캐나다) FIBA 심판 강사, 알레한드로 바게라(스페인) FIBA 심판 체력 트레이너, 코스타스 리가스(그리스) 전 유로리그 심판위원장 및 기술위원장 등 4명이 강사로 참가했다. 이들은 대한농구협회, KBL, WKBL 소속 심판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FIBA와 대한농구협회, KBL, WKBL의 심판 캠프 개최 필요성이 맞아떨어져 국내서 열리게 됐다. FIBA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심판들의 능력을 점검하고, 각종 국제대회에 파견할 국제심판의 자질을 지닌 후보가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농구협회, KBL, WKBL은 심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국내서 FIBA 심판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캠프가 열리는 것을 반겼다. 서로 '윈-윈'인 셈이다.



국제농구연맹(FIBA) 관계자들이 17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심판 캠프에서 국내 심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심판 교육과 함께 KBL, WKBL의 판정 가이드라인이 재정립되고 일관성이 유지돼야 판정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 곽영 1 뉴시스

단기간 캠프가 열리지만 국내서 활동하는 심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구협회, KBL, WKBL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FIBA 경기 규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장면에 대해서도 FIBA 심판 관계자들의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등 국내 심판들이 판정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과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 KBL과 WKBL은 스스로 판정 기준에 명확한 틀을 갖춰야 한다. KBL과 WKBL이 심판 문제에서 가장 많이 지적 받는 부분 중 하나는 판정 기준

이 시즌 도중 바뀐다는 점이다. KBL은 2015~2016시즌 트래블링 강화, 포스트-업 수비방법에 대한 휘슬 변화로 감독과 선수들의 불만을 샀다. WKBL은 시즌 도중 갑자기 속공을 끊는 수비자의 파울을 U파울을 적용하면서 선수들 및 감독들의 혼란을 자초했다. 이를 지켜보는 팬들도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매 시즌 판정에 대해 강조해야 할 사항들이 있겠지만, 큰 틀은 변화하면 안 된다. KBL과 WKBL이 판정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다음 시즌 판정 논란을 줄일 수 있다.

gyyoung@donga.com

KB스타즈, 안덕수 신임감독 임명 "세대교체 적합한 지도자"

일본리그 상송화장품서 9년간 코치

KB스타즈가 대한농구리그 상송화장품 안덕수(42) 수석코치를 차기 사령탑으로 임명했다.

KB스타즈는 18일 "안덕수 신임 감독을 계약기간 3년의 조건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안 신임 감독은 이날 오후 선수들과 상견례를 하고 사령탑으로서 공식 임정을 시작했다. 2015~2016시즌 팀과 함께한 진경석(37) 코치를 제외한 다른 코치진은 새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신임 감독은 일본에서 고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프로농구 삼성 센터스에서 선수로 활약했다. 선수생활 은퇴 후 대한농구연맹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일본으로 돌아가 상송화장품에서 9년간 코치로 활동했다.

KB스타즈가 국내무대 경험이 없는 지도자를 선택한 것은 다소 의외다. 국내여자프로농구에서 우승 경력을 지닌



KB스타즈는 18일 안덕수 신임 감독(가운데) 취임식을 열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오른쪽)과 김옥현 KB금융지주 사장이 안 감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스타즈

몇몇 감독과 국내남자프로농구에서 잔뼈가 굵은 지도자로 신임 사령탑 후보군에 포함됐지만, KB스타즈의 최종 선택은 일본에서만 활동한 안 감독이었다.

KB스타즈 관계자는 "안 신임 감독은 일본에서 어린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팀이 세대교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은 잠조 같은 인물이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용석 기자 gyyoung@donga.com

여자농구대표팀, 리우 가는 길 "첼시 리 귀화 승인 기대"

6월 13일부터 리우올림픽 최종예선 훈련기간 적어 선수들 몸만들기 고심

한국여자농구가 다시 한 번 가시밭길 앞에 섰다.

대한농구협회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낭트에서 열리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최종예선에 나설 12명의 여자농구대표선수 명단을 18일 발표했다. 2013년부터 대표팀을 이끈 위성우(우리은행) 감독이 다시 지휘봉을 잡은 가운데 박혜진, 이승아, 임영희, 이은혜, 양지희(이상 우리은행), 이경은(KDB생명), 김단비, 곽주영(이상 신한은행), 강아정(KB스타즈), 강이슬(KB스타즈), 배혜윤(삼성생명), 박지수(분당경영) 등 12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대표팀은 최종예선에 벨라루스, 나이지리아와 함께 C조에 속해 있다. 최종예선 참가 12개 팀 중 5개 팀에만 올림픽 본선 티켓이 주어진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더라도 8강에서 맞붙을 D조(중국·스페인·베네수엘라) 팀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

위 감독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위 감독은 "선수 구성도 문제지만

우리에게는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선수들이 시즌을 마치고 휴가를 보낸 직후다. 25일 진천선수촌에 소집해 훈련을 시작하겠지만, 훈련기간도 한 달을 갖 넘기는 정도다. 연습기간도 전술적 부분은 둘째 치고 선수들이 몸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대회에 나가게 될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고 밝혔다.

대한농구협회는 첼시 리(KEB하나은행)의 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첼시 리는 6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특별귀화 추천을 받았다. 문제는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사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14일 국제농구연맹(FIBA)에 제출한 예비엔트리(24명)에 첼시 리를 넣지 못했다. 예비엔트리 교체 시 FIBA에 3000스위스프랑(약 35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협회는 귀화 승인이 떨어지지만 하던 시기에 벌금을 내고 최종엔트리에 첼시 리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위 감독은 "첼시 리의 귀화가 되더라도 곧바로 뛸 몸 상태는 아닐 것이다.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우올림픽을 향한 험난한 길목에 선 위 감독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첼시 리(KEB하나은행)가 6일 열린 특별귀화 관련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대한농구협회는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사까지 통과할 경우, 첼시 리를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최종예선 엔트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뉴시스

오리는 추일승감독-이승현, 본사 내방 남자프로농구 오리는 추일승(53) 감독과 이승현(24) 선수가 18일 서울 정계천로 동아미디어센터 8층 스포츠동아를 방문했다. 오리는 '2015~2016 KCC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KCC를 4승2패로 누르고 2001~2002시즌 이후 14시즌 만에 우승했다.

편집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